

# 문헌정보학의 위기인식과 대처방안

## The Recognition and Management Program of LIS's Crisis

송 정 숙 (Jung-Sook S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1. 학문성의 정립  |
| II. 문헌정보학의 위기인식  | 2. 연구영역의 확대 |
| III. 문헌정보학의 대처방안 | IV. 결론      |

### 초 록

이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문헌정보학의 위기가 학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문 내적 원인과 직업군이 영세한 학문 외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의 정립과 연구영역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전 즉 기본 텍스트의 번역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문헌정보학의 개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 확대는 이론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장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서자료, 향토자료, 보존, 북한자료의 네 영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e cri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proposes an management program of LIS.

To overcome this crisis, the author made an management program by solidifying LIS as a science and enlarging research fields. To solidify LIS as a science, it can be helpful to translate classical literature on LIS into Korean for universality, and to base our own history and culture for individuality. Enlarging research fields of LIS will help to enrich theories and to develop new jobs. She suggests archives, local studies collection, preservation and literature on North Korea as additional research fields by example.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songjs@hyowon.pusan.ac.kr

## I. 서론

필자는 1997년 1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주최한 문정포럼에서 “서지학의 위기”<sup>1)</sup>에 대하여 발표한 것을 계기로 서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국 문헌정보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문헌정보학이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하지 않은데 서지학의 위상이 확고할 리 있으며, 문헌정보학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는데 서지학이 어찌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랴?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서지학에 앞서 문헌정보학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I. 문헌정보학의 위기인식

이 땅에 문헌정보학이 도입되어 교육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담론이 무성한 20세기 말 한국 사회에서 문헌정보학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부제를 시행한 어느 대학 문헌정보학과와 경우 2학년에 올라갈 때 학생들이 인기학과에 몰릴 것이 예상되므로 “학과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며 학부제의 탈퇴를 결정했다가 학교측의 만류로 보류했다고 한다.<sup>2)</sup> 이것이 그 단적인 보기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문헌정보학의 학문 외적 요인과 학문 내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학문 외적 요인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할 가능성 있는 화려한 직업군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예를 들면 법대나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졸업한다고 모두 법관이나 언론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문헌정보학과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화려한 직업군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문헌정보학 내부엔 전혀 문제가 없는가? 또한 이를 부정할 확고한 근거가 없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학부제가 되기 이전부터 학생들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성 미확보를 지적하였다. 즉 문헌정보학에는 무언가 심오한 이론이 없고 한낱 기술에 불과한 것 같다는 것이다.

1) 송정숙, “서지학의 위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정포럼 발표문, 1997. 1. 29.

2) “몸살앓는 학부제”, 「조선일보」, 1997. 10. 25.

심리학의 경우 구체적인 직업군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현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다. 그리하여 성적에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려고 오는 우수한 학생들이 간혹 있다. 그런데 문헌정보학과에는 그런 학생들을 보기 어렵다. 문헌정보학은 심리학과 같이 개발된 이론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학생들의 현학적인 호기심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망한 직업군의 개발과 학문성 확보의 실패는 문헌정보학과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문헌정보학은 이론도 풍부하지 못하고 이를 실천하는 현장도 튼튼하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은 낮고, 사서의 전문성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학명을 '문헌정보학'으로 개정하였다. 개명의 명분은 건물의 명칭을 학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명을 바꾸면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학명개정 의도와 무관하게 '도서관'이 문헌정보학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실습현장이 있는 사회과학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도서관'을 문헌정보학으로부터 소외하고, 장서를 구성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 외면하고, 정보화와 전산에 매진하였지만 도서관 현장의 봉사가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입안자들은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을 소외한 채 별도의 첨단학술정보센터나 디지털 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학문과 현장과 외부의 시각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헌정보학이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인기가 없고, 졸업생들이 가꾸는 현장의 봉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에도 실패하고, 학문 외부로부터 지식과 정보의 배포에 대해 주도적인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문헌정보학의 심각한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 Ⅲ. 문헌정보학의 대처방안

문헌정보학은 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사회의 요구에 걸맞게 학문성을 정립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 현상의 공통적인 성격을 설명한 보편성에 주목하여 이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문헌정보현상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탐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헌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학문분야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문의 영역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학문은 성장, 발전, 소멸하는 유기체이므로 문헌정보학계에서 사회변화의 추이에 따라 성장발전하는 영역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 축적한다면 우리 학문은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문헌정보학은 위축 소멸하게 될 것이다. 고대에서부터 목록체계의 변천상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 1. 학문성의 정립

문헌정보학은 독일의 슈레팅거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것’<sup>3)</sup>이라고 정의한 이래 도서관이라는 기관중심적이었으므로 과학성이나 학문성보다도 처방 위주의 기술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도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sup>4)</sup>

미국의 기울리아노Giuliano도 “사서직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관점보다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시각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 사서직은 어떻게 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유지하는 일상업무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장차의 사서직은 어떤 종류의 기관 내부업무에 기반해서 정의하지 말고 지식전달의 전문적 활동에 기반해서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권고한다.”<sup>5)</sup>고 하였다.

한국 문헌정보학이 과학으로서 학문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양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번역하여 문헌정보학의 보편적인 이론들을 대중화하여야 하고, 개별성 즉 독자성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한 문헌정보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1) 보편성의 추구

현재 문헌정보학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론이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학계가 그 동안 고전을 구심점으로 하지 않은 채 유행에 나부낀 결과라고 보는 학자들은 고전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최성진, 「증보판 도서관학통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1), p. 294

4) 미국에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이제환,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28집(1998 여름호), pp. 314-319를 참조하십시오.

5) Vincent E. Giuliano,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Science to Librarianship : Problems and Scientific Training", *American Documentation*, 20(1969), pp.344-345. 이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한국 문헌정보학의 문제들」(서울 : 구미무역주식회사출판부, 1994), p. 12 재인용.

고전 안에는 가장 ‘현대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전에 대한 번역과 연구를 통해 학문의 정체성을 공유했을 때 우리 학문이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도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의 학문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문헌정보학 분야 고전 즉 기본 텍스트의 번역<sup>7)</sup>은 문헌정보학 이론의 대중화, 민주화를 뜻한다. ‘민주화란 누구든지 참여한다’는 뜻이다. 영미문화권, 유럽의 라틴문화권, 중국·일본의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헌정보학 연구성과 가운데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의 문헌정보 현상을 설명하고 문헌정보 관련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해외의 문헌정보학 연구성과는 소수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의 기호와 필요에 의해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민주화되지 않은 상황, 즉 모두가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지식이나 정보를 독점한 자만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 예를 들면 칸트의 저작이 번역되지 않은 상황에서 칸트에 대해 강의한다는 것은 칸트를 독점한 자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칸트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sup>8)</sup>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고전이 국역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헌정보학의 보편적인 이론들이 소수의 연구자로부터 벗어나 대중화될 수 없다.

박영신은 “사회학계만 하더라도 그 동안 외국의 미풍이 국내에 들어오면 폭풍이 될 정도로 척박한 풍토를 지너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sup>9)</sup>고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학계의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헌정보학계에도 공통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학문을 지탱하는 이론이 빈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해외의 여러 문화권에서 생산된 보편적인 이론들을 다양하게 소개, 번역하여 학문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 원인은 번역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의 학문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진다. 다음으로는 문헌정보학의 연구인력을 생산해 내는 대학원 교육 규모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석박사과정은 규모가 작고, 연륜도 일천하다.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설치된 문헌정보학과는 1998년 현재 32개인데,<sup>10)</sup> 이 가운데 석사과정을 가진 곳이 20개이나<sup>11)</sup> 14개가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고, 박

6) “원전이 드문 우리 학계: 고전번역기구 설립 여론 일어”, 『교수신문』, 1996. 6. 3.

7) 참고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번역하기 위해 선정한 기본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C. C. Williamson.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1923) ; S. R. Ranganathan.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1931) ;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 ; J. Periam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s: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63) ;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972) ; Jesse H. Shera.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76) ; Allan D. Pratt. *The Information of the Image*. (1982). 이용재, “기분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외국텍스트 번역의 문제”,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7집(1997), pp. 128-129.

8) 김용옥,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95), p. 41.

9) “원전이 드문 우리 학계: 고전번역기구 설립 여론 일어”, 『교수신문』, 1996. 6. 3.

10)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을 가진 곳이 12개이다. 교육대학원은 1970년대(1973: 이화여대)와 1980년대

사과정을 가진 곳이 7개이나<sup>12)</sup> 1990년대까지 4곳에 불과하였다. 혹시 숫적으로 열세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학과당 전임교수의 수가 대부분 5명 이내이므로 비록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위전공으로 세분화되지도 못하고 타학문 분야에 비해 생산규모도 왜소하다. 이처럼 타학문에 비해 연구인력의 생산규모가 영세한 것은 상대적으로 외국문헌에 익숙한 번역 인력의 규모가 적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sup>13)</sup>

이처럼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장할 만한 번역된 고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문헌정보학계가 근본을 다지는 데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헌정보학에 무언가 심오한 이론이 없고 기술에 불과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큰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전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론을 풍부히 하는 것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개별성의 확보

역사적으로 볼 때 구미 각국의 사회과학은 예외없이 보편주의적 관점보다는 자신의 사회, 즉 개별 국민 국가의 발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된 이론은 개별 국가가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에 합당한 이론적 틀이 만들어진 후 그 틀은 하나의 전통으로 그 뒤 세대의 학문 전통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4)</sup> 사회과학적 지식의 경우는 선진국적인 현상과 후진국적인 현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만큼 국지성을 면하기 어렵다.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과학을 받아들였을 때와 같이 한국에서도 해외의 사회과학을 수용할 경우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던 특수한 지적 전통이 어우러지는 조정과정, 즉 보수·수정·비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이 문헌정보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한국 문헌정보학은 한국 문헌정보현상

---

(1982: 한양대, 1987: 공주대)에 설립된 세 대학을 제외하고는 9곳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1993: 상명대, 1994: 명지대, 1995: 청주대, 1997: 경기대·대진대·신라대·중앙대, 1998: 계명대, 1999: 성균관대) 그리고 2년제 대학에 문헌정보과를 가진 곳이 8개이다.

11) 석사과정은 1950년대 1개(1957: 연세대), 1960년대 1개(1963: 이화여대), 1970년대 4개(1971: 성균관대, 1972: 효성가톨릭대, 1973: 중앙대, 1978: 경북대), 1980년대 8개(1980: 상명대, 1983: 숙명여대·청주대, 1988: 계명대·서울여대, 1989: 명지대·부산대·전남대), 1990년대 6개(1991: 충남대, 1993: 전주대·동덕여대, 1996: 대구대, 1997: 한남대, 1999: 한성대)의 20개 대학에 개설되었다.

12) 박사과정은 1970년대 1곳(1974: 성균관대), 1980년대 3곳(1980: 연세대, 1983: 중앙대, 1987: 이화여대), 1990년대 3곳(1991: 부산대, 1992: 상명대, 1999: 전남대)의 7개 대학에 개설되었다.

13) 외국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교수진으로 충원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14) 박상섭, “근대 사회의 전개 과정과 사회과학의 형성 및 변천”,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 체계』(서울: 민음사, 1995), p. 208.

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이 외국의 문헌정보현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자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외국의 문헌정보학 이론이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설명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주원인을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15)</sup> 만약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한 우리의 문헌정보학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땅의 문헌정보현상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온전히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포, 수집, 조직, 이용, 보존의 현상, 즉 문헌과 문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현상<sup>16)</sup> 및 그 역사를 밝히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록매체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출현한 도서관을 포함한 지적 기구들과 그 역사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sup>17)</sup>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한국 문헌정보현상의 특이성을 세밀히 관찰하여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sup>18)</sup> 우리 문헌정보 현장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구미와는 상이하므로 보편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헌정보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 현실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한국 문헌정보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서구의 '선진' 이론에만 의존한 데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탈식민성 담론에 대한 연구,<sup>19)</sup> 한국 문헌정보현장의 특이성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 현장의 현단계를 점검하는 논의와 이를 위한 방법론의 탐구들이<sup>20)</sup> 그 보기이다.

너희 학문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우리 학문은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sup>21)</sup> 우리에게 대해 몰랐을 때의 부끄러움은 이봉순 관장의 인터뷰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22)</sup> 우

- 15) 한국 문헌정보현상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김정근의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5)에서 논의되고 있다.
- 16) 이때 '문헌'의 개념은 뉴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뜻한다. '문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이희재가 bibliologie를 "문헌 및 문헌적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원용했다. 이희재, 「書誌學新論」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8), pp. 30-31.
- 17) 朴尙均, 「書誌學散藁」(서울: 民族文化社, 1989); 沈喞俊, 「內賜本 版式·古文書 套式 研究」(서울: 一志社, 1990);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1);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서울: 범우사, 1992); 鄭亨愚, 「朝鮮朝 書籍文化研究」(서울: 구미무역주식회사 출판부, 1995) 등이 대표적이다.
- 18) 張相浩, 「학문과 교육, 상: 학문이란 무엇인가」(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 436.
- 19) "압과 삶의 조화 통한 우리식 학문: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1945~1995", 「부대신문」, 1999. 8. 23.
- 20) 김정근 역음,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 21) 노동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미학",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초청강연, 1997. 10. 29. 발표자는 토의시간에 "성악을 공부하러 구미로 유학한 사람은 대개 다음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 그들이 너희 노

리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두고서 첨단도 하고 서구도 하자.

## 2. 연구영역의 확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요구 가운데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로, 수집, 조직, 이용, 보존 즉 문헌과 문헌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문헌정보학계가 책임지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삶의 터전을 외면하는 학문은 자생력이 없으므로 뿌리가 깊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도태하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자신의 삶에 소용이 없는 학문은 '현세에 내놓아도 세상을 깨우치는 것과 관계가 없고, 후세에 전하여도 실용에 도움이 없다'고 200여 년 전의 정조(正祖)도 같았다.<sup>23)</sup>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에 마땅히 포함되어 연구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의 소위 '보편적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일지라도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학문활동을 하여야 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문헌정보학계도 동참하여야

---

래를 부르라고 하여 '세모시' 등의 우리 가곡을 부르면, 그것은 가사가 너희 나라 말이지 곡은 우리 것이라고 하며 유사한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많은 가곡이 우리 정서에 바탕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런데 윤이상의 곡을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에게 연주하라고 하면 그들은 땀을 뻘뻘 흐리는데 KBS는 쉽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 윤이상의 음악은 한국의 정서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2) "한국학 교과목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홍직 선생님·김원룡 선생님이 오셔서 대학원과정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학부에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분들을 모시러 갔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1961년에 유네스코의 International Cataloging Conference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했어요... 편목 분야의 쟁쟁한 학자들이 다 모였기에 그분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고 하니 한국학자, 문헌류, 또 모리스 꾸랑의 서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모리스 꾸랑의 서지야 조금 알고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공부하고 일본식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나로서는 한국역사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나에게 문헌비고니 한국학자니 물어보니 한국도서관인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외국의 것이나 달달 외우는 사서는 다 소용없는 얘기고 내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었어요. 이런 것은 당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1961년에 당장 교양과목에다 일본어하고 한문을 넣었어요. 1.2학년 동안에 4학기를 배우도록 했어요. 우리 나라 자료, 특히 고전을 다루려면 한문과 일본어를 모르고는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한문이 싫다고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후회하니 탄소리 말라고 했어요. ... (김원룡, 이홍직 선생에게) 나는 내가 가르쳤다는 졸업생이 앞으로 국제회의에 나가서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라고 말했죠". 이수상, "한국의 문헌정보학 존재인가?: 李鳳順 관장과의 대담", 《圖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會)》 제36권 제1호(1995. 1·2), pp. 11-12.

23) "근래의 저술들이 군더더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여, 아침에는 좋은 서가에 꼽혀 있다가 저녁이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고 마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선인들이 해 놓은 범위의 것이나 주위 모으고 이미 묵은 의례를 모방해서 현세에 내놓아도 세상을 깨우치는 것과 관계가 없고, 후세에 전하여도 실용에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正祖, "凡例", 「羣書標記」, 「弘齋全書」 補遺.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다양한 하위학문 분야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대는 새로운 실천현장을 개척,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고, 이는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과 직결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4개의 연구영역도 망라적이 아니라 예시적임을 밝혀둔다. 이외에도 더 많은 영역이 문헌정보학의 하위 영역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1) 문서자료

문헌정보학에서 “문헌이라 함은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기록물을 가리키며, 도서, 팜플렛, 잡지, 영화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폼, 자기자료, 지도, 설계도, 수표, 사본, 원고 및 그 밖의 모든 메시지 전달매체를 가리킨다.”<sup>24)</sup> 이처럼 문헌의 개념이 오늘날은 글 또는 그림을 담은 책자 자료뿐만 아니라 문서류 그리고 인쇄물 또는 필사물의 속성을 벗어나 전자자료까지 포괄한 일체의 시청각자료로 확대되었다.<sup>25)</sup> 그럼에도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대상은 2차자료인 책자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기록을 비롯한 문서자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문헌의 정의에 명실상부하게 연구대상을 문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을 개발 축적하며,<sup>26)</sup> 교과과정에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sup>27)</sup>

문서(archives)는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축적된 기록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는 서류이다.<sup>28)</sup> 따라서 문서자료는 삶의 현장에서 생산된 1차자료이고, 편찬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문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서 역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동양은 고대에서부터 역사를 기술할 때 국왕의 명령과 사건을 분리하였다. 「書經」은 천자의 명령을 기록한 당, 우, 하, 은, 주 5대의 정치 문서집으로 사건을 기록한 「春秋」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조선조의 경우 史官 8명은 교대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 숙직하고 조회·경연 등 일상적인 행사는 물론이요, 중신회의와 기타 국왕과 관리가 만나는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국왕과 관리가 면담할 때에는 비록 정승이라

24) 최성진, 앞책, p. 2.

25) 천혜봉, 「韓國書誌學」(서울 : 민음사, 1991), p. 86.

26) 이에 대한 저술로는 김상호, 「기록보존론」(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8)이 유일하다.

27) 이에 관련한 교과목은 ‘정부간행물’(동의대, 부산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남대), ‘정부간행물과 기록관리’(대구효성카톨릭대), ‘정부기록물관리’(대구대) 등의 명칭으로 일부(7개) 대학에 1강좌씩 개설되어 있을 뿐 문서자료의 평가, 조직, 기술, 보존, 문서관 경영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았다.

28) Sue Mckemmish "Introducing Archives and Archival Programs", Judith Ellis, ed, *Keeping Archives*, 2nd edition, (Port Melbourne, Australia : Thorpe for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1993), p. 2.

하더라도 단독으로 비밀히 만나지 못하였다.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데리고 만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일 단독으로 만나면 사사로운 정황을 말하거나 남을 모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이와 같이 사관은 국가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고, 국가의 모든 비밀문서를 다 입수하여 사초를 기록하고 時政記<sup>30)</sup>를 작성하였다. 사초는 사관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여 자기 집에 보관하였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에 춘추관으로 보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춘추관의 시정기와 승정원 문서는 3년마다 인쇄하여 해당 관청과 의정부 및 사고에 간직한다. 서장관은 날마다 일을 기록하여 돌아온 뒤에 왕의 재가를 받아 승정원에 내려 배겨 쓰게 한다. 여러 관사와 여러 고을의 문서는 분류, 편철하여 침지를 붙여(付籤) 각각 간직한다.”<sup>31)</sup>고 하였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보니, 3년마다 사대(事大)와 관계되는 갖가지 문서들을 교서관에 보내어 활자로 인쇄하여 의정부와 예문관에 각각 한 건씩 보관하였다. 법을 제정한 뜻은 본래 이와 같으나, 근래에 이것을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1784년(정조 8)에 중국에 보내는 문서를 활자화하여 보관할 것을 명령하였다.”<sup>32)</sup> 순조조에는 박종훈이 「정원일기(政院日記)」를 신중히 기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벌줄 것을 청하였다.<sup>33)</sup> 이처럼 조선조에서는 문서를 비롯한 국가기록의 관리가 엄격하였다. 이렇게 관리된 문서와 기록이 실록을 비롯한 각종 역사서 편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기록의 관리와 보존의 찬란한 전통은 일제에 의해 단절되었다. 즉 대한 제국말기까지 중요한 공문서류를 4대 사고에 이관하여 보존하던 조선시대의 보존방식은 달리 조선총독부에서는 별도의 중앙집중적인 문서보존시설을 만들지 않았으며,<sup>34)</sup> 조선총독부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은폐하기 위해 중요정책문헌을 소각하기 일췌였고, 해방 전후한 시기에는 각종 공문서를 소각하고 도주하였다. 해방 후에도 조선조의 문서관리 전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폐기와 은폐의 악습이 만연되었다.<sup>35)</sup>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서를 비롯한 국가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30일 제정되었다.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문서자료와 문서관의 경영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 축적하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또 문서관이 설립될 때를 대비하여 문서관에서 봉사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29) 申奭鎬, 「朝鮮王朝實錄」, 東亞日報社 編輯部 編, 「韓國을 움직인 古典 100選」(서울 : 동아일보사, 1978) p. 97.

30) 시정기는 춘추관의 당직 사관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서 춘추관에 보관하였다. 대개 한 달에 한 책씩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기사가 많을 때에는 2책 이상이 되기도 하였다.

31) 「譯註 經國大典 : 勅譯篇」, 國譯叢書 85-1,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 247-248.

32) 「정조실록」 권 18, 정조 8년 10월 9일 신묘.

33) 「순조실록」 권 19, 순조 16년 8월 24일 경자.

34) 金在淳, 「韓國近代 公文書管理制度的 變遷」, 《記錄保存(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제5호(1992), pp. 46-47.

35) 「통치권자 '뒤탈' 우려 문서 파기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 1999. 3. 14.

미국에서 문서관 운동은 도서관인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세기 문서관 운동에 있어 위대한 존재인 저스틴 윈저Justin Winsor와 윌리엄 풀William F. Poole은 도서관인인 동시에 역사학자이다. 이 두 사람은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역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공문서관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sup>36)</sup>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국립문서관 운동이 향토를, 향토에서, 향토의 사료를 보존하기 위한 지방의 향토사학자들이 주도한 지방고문서관 운동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지방의 고문서관은 대부분 도서관 부속이었으며, 직원도 사서였다.<sup>37)</sup>

문화의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조가 가능하다.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기록, 즉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정보는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기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물이고, 아울러 학교, 기업, 교회, 각종 사회단체 등과 가족과 개인의 기록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서관과 문서관 등 문헌정보관련기관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의 기억을 최대한 보존하여 후손에게 넘겨줄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자자료는 물론이고 문서자료를 비롯한 1차자료의 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생산될 당시에 수집해 놓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집할 수 없다. 문서자료는 책자자료와는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고 타이밍, 즉 때가 중요한 일회성 자료이기 때문이다.

## 2) 향토자료

우리 삶의 일상이 내는 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일이 곧 우리 학문의 주체성과 자생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할 때,<sup>38)</sup>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앓과 글의 권리원천인 삶'<sup>39)</sup>의 현상이 바뀌면 앓과 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관련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들 수 있는 한 예가 지방자치제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 서서히 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치의식이 고양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문화의 독자성을 인식함으로써 중앙에서 관리한 문화가 아닌 지방의 독자적 문화를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손으로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비추어 문헌정보학계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향토자료<sup>40)</sup>에

37) Theodore. R. Schellenberg, *The Management of Archives*, (Washington, D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65), p. 3.

37) 芳賀 登, 「地方の思想」, 呂博東・小林幸夫 共譯, 「地方文化的の保全」(서울: 教育科學社, 1985), p. 218.

38)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1996), p. 8.

39) “인터뷰: 글쓰기의 경계를 넓혀나가는 김영민 교수”, 「교수신문」, 1997. 10. 13.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는 중앙사 위주로서 내용도 정치·행정·군사·외교 등의 유일 사건 중심, 중앙의 권력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한국인의 삶을 담아내는 온전한 한국사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 땅을 살아왔고 살아가는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향토자료를 수집함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많은 역사연구가 주로 책자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조의 사회계층을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눌 때 문자생활을 향유하고 기록을 생산한 계층은 거의 양반계층이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중인계층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책자자료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계층의 삶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 땅에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갈 모든 계층을 삶에 대한 기억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향토자료실은 출판된 책자자료 중심의 일반자료실과는 달리 해당 지방의 사람과 단체와 조직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원자료<sup>41)</sup> 및 출판된 책자자료들이 모두 수집대상이다. 일반자료실의 자료가 주로 이용 중심인데 비해 향토자료실의 자료는 이용은 물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도 포함된다. 따라서 향토자료실에는 보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수집되는 자료의 유형도 책자자료뿐 아니라 문서, 일기, 일지, 회계장부, 전단, 팜플렛, 전화번호부, 신문, 잡지,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필사자료와 인쇄자료들이 포함된다.

만약 도서관에서 그 지방의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혹시 개인이나 단체가 향토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 이 자료들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향토자료를 수집, 보존하여야 할 가장 으뜸가는 이유는 도서관은 영원하고 항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향토자료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사서가 이 자료들을 무시하고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다고는 할 수 없다.<sup>42)</sup> 따라서 도서관계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거나 활성화해야 하고, 학계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고, 또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도서관협회가 연구회도 개최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향토자료를 보존

40) 문헌정보학계에서 향토자료에 대한 연구성과는 일부 석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2 ; 정분도, “郷土資料의 書誌的 考察 : 全南郡誌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정주연,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8.

41) 원자료, 즉 1차 자료라 함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에 생산된 자료를 의미한다.

42) James H. Conrad, *Developing Local History Programs in Community Librarie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p. 7.

하기 위해 착실히 노력했다. 그 결과 도서관 사서의 고문서 보존에 대한 자각은 공공도서관을 문화센터로 하고, 지방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토자료 종합목록 작성이나 고문서 수집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sup>43)</sup>

다음으로 장차 설립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향토자료와 향토자료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구청 산하의 5개 공공도서관에는 모두 향토자료실을 두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향토사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을 찾고 있다. 그런데 향토자료실은 독립된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담사서도 없고, 기본적인 자료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향토자료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으므로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1차 자료의 수집은 엄두도 못 내고, 2차자료도 대부분 기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장서의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은 향토자료의 수집·조직·이용·보존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축적하여 장차 설립될 지방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보존

문헌정보학에서 자료관리의 4대 영역인 수집, 조직, 이용, 보존 가운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보존이다.<sup>44)</sup> 한국의 경우 고전자료는 대부분 종이의 질이 우수한 닥종이로 되어 있으므로 고전자료실에서도 보존이 화급한 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해방 후에 설립되었으므로 종이의 열화(劣化)나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존은 정부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의 몫으로 여겨져서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sup>45)</sup>

43) 芳賀 登, 잊책, p. 219.

44) 「전국대학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문헌정보과 교수 주소록」(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 1998. 10)에 의하면 보존에 대해 개설된 강좌는 정선영(광주대) 교수의 '정보자료보존론'이 유일하다.

45)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루어진 보존에 대한 연구로는 권기원, “圖書館資料 保存에 관한 研究: 大學圖書館의 圖書資料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9. 정선영,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水災의 豫防과 復元對策”, 《季刊書誌學報》 제10호(1993. 9), pp. 83-116. 정선영,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II: 酸性종이자료의 脫酸處理”,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25집(1993. 12), pp. 265-294. 정선영,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III: 자료를 損傷시키는 微生物과 곤충의 驅除”,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14집

그러나 우리의 경우 거의 해마다 장마 때 홍수로 전국의 어딘가가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올해도 파주, 연천, 문산 지역이 침수되어 주택이나 전답은 물론 동사무소와 은행 등 관공서도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부종합청사 4층 통일부의 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나서 일부 대북 관련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등이 불에 탔다고 한다.<sup>46)</sup> 이처럼 홍수나 화재가 일어나면 서류, 회의록, 재산관련 문서, 사진, 일기, 편지 등의 각종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활동에 관한 기록 등 개인과 집단의 기억들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어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게 된다.

화재나 홍수로 인해 자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궁하지마는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각종 자료실에 불이 붙어 있어 “자료들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다”<sup>47)</sup>고 하면 여기에는 수궁하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이 서서히 불타고 있다 함은 열악한 환경의 서고에 자료가 방치된 현재의 상황이 마치 도서관자료에 불을 붙여 놓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보존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인해 본의 아니게 도서관에 불을 질러 놓고 있는 격이 되었다.

보존(preservation)은 자료들을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손상되었거나 노화된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 처리하는 데에 수반하는 모든 과정과 작업을 말한다.<sup>48)</sup> 즉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의 예방조치와 훼손되었을 경우의 사후 복구조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서나 기록을 구성하는 각종 종이나 사진이나 자기테이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 기록매체의 성질을 연구하고, 이들이 손상되는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 자료의 손상이 최소화되고 지체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낱장자료나 책자자료 등의 인쇄자료와 시청각자료 등의 취급방법과 이들 자료의 특성에 따른 보존 장비와 시설,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사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기, 자료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의 처치 등을 세부사항으로 들 수 있다.<sup>49)</sup>

우리의 현실도 앞으로 머지 않아 양지에 기록된 근대의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마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과 집단은 물론 민족 전체의 기억을 상실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 현장은 물론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

(1994. 12), pp. 291-31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록보존소와 문화재관리학 분야에서 두 편의 연구물이 생산되었다. 이영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려면 : 문서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0권 제1호(1999. 3), pp. 243-255 ; 박지선, “古代 종이 遺物의 保存修復”,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15집(1998. 6), pp. 135-158.

46) “통일부 사무실서 불나 1500만원 재산피해”, 「조선일보」, 1999. 7. 12.

47) 이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최한 ‘도서 100만권 확보 및 주제도서관 구축 기념 세미나(1999. 5. 14.)’에서 가진 박지선의 “기록물의 보존”이라는 발표에서 인용했다.

48) Lewis J. Bellardo and Lynn Lady Bellardo compiled.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2), pp. 26-27.

49) Mary Lynn Ritzenthaler, *Preser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3.) 참조

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자료의 보존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면 도서관과 문서관은 물론 박물관 등 다양한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4) 북한 자료

문헌정보학이 모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은 다양한 서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sup>50)</sup> 서지를 개발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학자와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신속,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학자와 이용자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남북통일이다. 한국의 통일은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의 차원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건전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또한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sup>51)</sup>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에서 진행된 군사, 정치, 경제 중심의 북한학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법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붕괴가 초래될 경우 그 상황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역량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sup>52)</sup>는 것이다.

경제학이나 정치학 부문의 학자들의 역할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면 역사학과 같은 인문계의 학자들의 본분은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조성하는 데 있다. 북한 문화예술의 현상과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기획한 <북한문화예술의 이해>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이다.<sup>53)</sup>

문헌정보학계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움직임은 많지 않다. 반면에 국어국문학, 한국사학, 정치외교학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됨을 볼 수 있다. 국어국문학 분야에는 ‘북한의 언어학’, ‘북한의 문학’<sup>54)</sup>, ‘남북한 국어문제’, ‘북한사회와 문학’, ‘남북한 현대문학사’<sup>55)</sup> 등이, 한국사학분야에는 ‘북한의 고·중세사연구동향’, ‘북한의 근·현대사연구동향’<sup>56)</sup>

50) 서지의 종류로는 저자서지, 서지의 서지, 목록, 문헌안내서, 국가 서지, 선택 서지, 주제 서지, 상업 서지, 국제 서지 등을 들 수 있다. 이희재, 앞책, p. 77.

51) John B. Duncan, “한국통일에 기여하는 한국학 연구방향”,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안동: 안동대학교 문화회관, 1997. 10. 3-4), p. 87.

52) “통일학을 만들자”, 「한겨레」, 1997. 5. 7.

53) 이 시리즈는 「북한의 민속예술」, 「북한의 언어생활」, 「북한의 고전문학」, 「북한의 현대문학I」, 「북한의 현대문학II」, 「북한의 미술」, 「북한의 공연예술I」, 「북한의 공연예술II」, 「북한의 문화유산I」, 「북한의 문화유산II」, 「북한의 문화정보I」, 「북한의 문화정보II」의 12권으로서 1991년 고려원에서 발간되었다.

54)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 <<http://www.korea.ac.kr/~kukl/info/curry.htm>>

등이, 정치외교학 분야에는 ‘북한외교정책’, ‘북한정치론’, ‘통일문제연구’, ‘남북한 비교정치’<sup>57)</sup> 등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문헌정보학 분야에는 강좌가 개설되거나 단행본이 출판된 것도 없으며, 연구논문도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통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통일되었을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문헌정보학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의 도서관을 비롯한 문헌정보 현상<sup>58)</sup>과 문헌정보학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의 교류방안<sup>59)</sup>도 모색하여야 하고, 통일 후의 문헌정보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구상도 해야겠다. 다음으로 다양한 서지도구의 개발을 통해 그 동안 단절되었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통일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지식과 정보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몫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북한에서 생산된 저서와 논문의 총목록과 분단 이후 주제별 문헌의 해제나 초록, 서평<sup>60)</sup> 등의 발간을 통한 각 학문분야별 북한의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 인명록의 발간을 통한 각 주제별 연구자에 대한 소개, 학회와 연구소의 현황 파악, 주제별 정기간행물의 발행현황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등 북한의 학술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제까지 북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남과 북의 연구성과를 통합한 서지도구들을 주제별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그간의 우리의 연구에 북

55)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 <<http://www.yonsei.ac.kr/data/gateway/course/viewcourse?code=53>>

56)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과과정, <<http://www.korea.ac.kr/~hokorea/curri.htm>>

54)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에는 ‘북한외교정책’, ‘북한정치론’, ‘통일문제연구’가 편성되어 있다. <<http://www.korea.ac.kr/Depart/Politic/govern/bea4.html>>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에는 ‘북한정치론’, ‘통일문제특강’이 개설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과과정에는 북한정치, 남북한 비교정치가 있다.

<<http://www.yonsei.ac.kr/data/gateway/course/viewcourse?code=112>>

58) 이에 대한 연구로는 梁一雲, “北韓의 圖書館”, 《北韓》 126호, 1982. pp. 108-119 ; 송승섭, “심층분석 上 : 북한 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北韓》 1994년 1월호, pp. 152-159 ; 송승섭, “심층분석 下 : 북한 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北韓》 1994년 2월호, pp. 142-149 ; 한상완, “광복 50년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 《도서관문화》 제36권 제5호(1995년 9·10월호) pp.13-32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30권 제1호(1996), pp. 89-123 등이 있다.

59) 이에 대한 연구로는 정분회,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독 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12 ; 한상완, “도서관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방안”, 《도서관문화》 제35권 제1호(1994년 1·2월호) pp. 3-15 등이 있다.

60) 「북한이념도서 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 1」,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1989. 「북한이념도서 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 2-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89. 「북한이념도서 원전 및 이념도서 서평집, 5-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0. 이 도서들은 그동안 간행되었던 북한 원전 및 이념도서 등에 대해 일반 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쓴 서평집이다.



쪽의 연구를 어우른다면 한국의 학문 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문헌정보학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학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문 내적 원인과 직업군이 영세한 학문 외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학문성의 확립과 연구영역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전 즉 기본 텍스트의 번역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초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개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 확대는 이론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장의 개발에 기여하므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서자료, 향토자료, 보존, 북한자료의 넷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문서자료와 문서관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대비하여 새로운 현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토자료실의 설치나 활성화는 공공도서관이 지방기록물관리관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보존에 대한 강화는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자료의 보존에 대해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도서관은 물론 문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현장으로 진출 할 수 있으며, 북한자료에 대한 관심은 문헌정보학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연구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이론을 풍부히 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문헌정보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고전 번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관협회나 한국문헌정보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 문헌정보학 고전번역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 참 고 문 헌

- 「羣書標記」, 「正祖實錄」, 「純祖實錄」
- 「譯註 經國大典 : 翻譯篇」, 國譯叢書 85-1.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김상호. 「기록보존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8.
- 김열규. “잃어버린 문화의 정조관념을”. 《WIN(중앙일보사)》 1996. 10.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 민음사, 1996.
- 김용옥.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통나무, 1995.
- 金在淳. “韓國近代 公文書管理制度的 變遷”. 《記錄保存(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제5호(1992). pp. 35-49.
-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8.
- .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5.
- 노동은. “한국대중음악의 역사와 미학”.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초청강연.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관 대회의실. 1997. 10. 29.
- 朴尙均. 「書誌學散藁」. 서울 : 民族文化社, 1989.
- 박상섭. “근대 사회의 전개 과정과 사회과학의 형성 및 변천”.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 체계」. 서울 : 민음사, 1995.
- 박지선. “古代 종이 遺物의 保存修復”.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15집(1998. 6).
- 박지선. “기록물의 보존”.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 100만권 확보 및 주제도서관 구축기념 세미나. 1999. 5. 14.
- 송승섭. “심층분석 上 : 북한 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北韓》 1994년 1월호.
- . “심층분석 下 : 북한 도서관의 기능과 현황”. 《北韓》 1994년 2월호.
- 송정숙. “서지학의 위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정포럼 발표문. 1997. 1. 29.
- 申奭鎬. “朝鮮王朝實錄”. 東亞日報社 編輯部 編. 「韓國을 움직인 古典 100選」. 서울 : 동아일보사, 1978.
- 梁一雲. “北韓의 圖書館”. 《北韓》 126호. 1982.
- 沈偶俊. 「內賜本 版式·古文書 套式 研究」. 서울 : 一志社, 1990.
- 안동대학교 국학부 편. 「21세기를 겨냥한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 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집문당, 1997.
-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서울 : 범우사, 1992.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①. 서울 : 고려원, 1991.
- 이수상. “한국의 문헌정보학 건재한가? : 李鳳順 관장과의 대담”. 《圖書館文化(韓國圖書館協

- 會)》 제36권 제1호(1995. 1·2).
- .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 한올아카데미, 1998.
- 이영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려면 : 문서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0권 제1호(1999. 3).
- 이용재. “기본을 찾아 떠나는 여행 :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외국텍스트 번역의 문제”.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7집(1997).
- 李載喆. 「韓國文獻情報學의 문제들」. 서울 : 구미무역주식회사출판부, 1994.
- 이제환.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제28집(1998 여름호).
- 이희재. 「書誌學新論」.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8.
- 張相浩. 「학문과 교육, 상 :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전국대학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문헌정보과 교수 주소록」. 서울 :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 1998. 10.
- 정분희.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통독 전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12.
- 정성영.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 水災의 豫防과 復元對策”. 《季刊書誌學報》 제10호(1993. 9).
- .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II : 酸性종이자료의 脫酸處理”.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25집(1993. 12).
- . “情報資料의 保存對策 III : 자료를 損傷시키는 微生物과 곤충의 驅除”.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14집(1994. 12).
-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鄭亨愚. 「朝鮮朝 書籍文化研究」. 서울 : 구미무역주식회사 출판부, 1995.
- 천혜봉. 「韓國書誌學」. 서울 : 민음사, 1991.
- 최성진. 「증보관 도서관학통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1.
- 한상완. “도서관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방안”. 《도서관문화》 제35권 제1호(1994년 1·2월호).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30권 제1호(1996).
- 芳賀 登. 「地方の思想」. 呂博東·小林幸夫 共譯. 「地方文化의 保全」. 서울 : 教育科學社, 1985.
- Bellardo, Lewis J. and Bellardo, Lynn Lady compiled.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2.
- Conrad, James H. *Developing Local History Programs in Community Librarie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9.
- Duncan, John B. “한국통일에 기여하는 한국학 연구방향”,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국학 : 무엇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2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안동 : 안동대학교 문화회관, 1997. 10. 3-4.

Ellis, Judith ed.. *Keeping Archives*. 2nd edition. Port Melbourne, Australia : Thorpe for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1993.

Ritzenthaler, Mary Lynn. *Preser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3.

Schellenberg, Theodore. R. *The Management of Archives*. Washington, D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65.

Young, Heartsill 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사료관리 영망 연구자들 자료찾기 진땀”. 『한겨레』. 1995. 8. 17.

“원전이 드문 우리 학계 : 고전번역기구 설립 여론 일어”. 『교수신문』. 1996. 6. 3.

“학회의 어제와 오늘(16) : 한국사회학회”. 『교수신문』. 1996. 7. 1.

“인터뷰 : 글쓰기의 경계를 넓혀나가는 김영민 교수”. 『교수신문』. 1997. 10.13.

“몸살앓는 학부제”. 『조선일보』. 1997. 10. 25.

“통일학을 만들자”. 『한겨레』. 1997. 5. 7.

“통치권자 ‘뒤탈’ 우려 문서 파기 기록이 없다.” 『동아일보』. 1999. 3. 14.

“통일부 사무실서 불나 1500만원 재산피해”. 『조선일보』. 1999. 7. 12.

“앞과 삶의 조화 통한 우리식 학문 :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1945~1995”. 『부대신문』. 1999. 8. 23.